

## 하나금융지주 합병주부회장 판결의 주요 쟁점

농협은행 준법감시인

농협은행 준법감시인입니다.

최근 하나금융 **합영주** 부회장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의 주요 **쟁점** 및 우리 금융(손태승회장) 판결과 어떤 **차이**가 있는지에 대해서 가급적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

두 사건 모두

(i) DLF 불완전판매 사건이라는 점, (ii) 핵심 경영진에 대한 중장계 사건이라는 점, (iii) 지배구조법 제24조제1항(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)이 쟁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공통됩니다. 참고로 법 제24조제1항은 “금융회사는 ~~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” 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.

하나금융 판결에 여러 세부 쟁점이 있지만,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은행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기는 하였지만 **실효성**(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음)이 적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경우, 과연 제24조제1항(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)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, 이는 **우리금융 판결과 가장 큰 차이점**입니다.

즉, 우리금융 판결에서는 법정사항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단순히 미흡한 이행만으로는 제재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, 하나금융 판결에서는 **실효성** 자체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아 **미흡한**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**두 판결이 큰 차이**가 있습니다.

하나금융 판결에 대해서는, **실효성** 요건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표현으로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**결과론적**으로 사고가 나면 다 실효성이 없는 기준 아니냐, **법적 안정성을 침해**하는 것이 아니냐는 **반론이 만만치 않은** 것으로 보입니다.

하나금융 판결에 따르면, 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점검 **부담이 한층 강화**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**경영진의 책임** 가능성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

다만, 두 판결이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측면이 있는 만큼, 향후 상급심에서 어느 한 쪽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따라서, 향후 상급심의 판단 여부를 지켜 볼 필요가 있어 임직원 여러분께 주요 쟁점과 영향을 공유 드립니다.